奎章總目 解題

愼 鏞 廈*

奎章閣이 1776년(正祖 即位年)에 正祖의 改革을 위한 기구의 하나로서 설치된 이후 그 圖書만을 보면 草創期의 書庫는 6곳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즉 ① 奉謨堂 ② 閱古觀 ③ 皆有窩 ④ 移安閣 ⑤ 西庫(西序) ⑥ 外奎章閣(江都外閣)이 그것이다.

〈奉謨堂〉은 列朝의 御製 御筆 御畫 顧命 遺誥 密敎 璿譜 世譜 寶鑑 狀誌 등을 奉安한 곳으로서, 현재 서울大學校 圖書館 奎章閣圖書《奉謨堂奉安御書總目》〈奎 No. 9838〉 3卷 3册이 그 圖書目錄이다.

〈閱古觀〉과 〈皆有窩〉는 〈華本〉(中國本圖書)을 소장하던 書庫로서, 여기서 解題하는 奎章閣圖書《奎章總目》〈奎 No. 4461〉 4卷 3册이 그 圖書目錄이다.

〈移安閣〉은 列朝의 御製 御筆 御眞 등을 移奉하였던 곳으로서 〈書香閣〉이라고도 불리었다. 奎章閣圖書《書香閣奉安總目》〈奎 No. 7924〉 1册이 그 圖書目錄이다.

〈西序〉(西庫)는 閱古觀의 북쪽에 있어서 〈東本〉(韓國本)을 소장하는 곳이었다. 원래 西序의 圖書目錄으로서《西序目錄》2卷이《奎章總目》華本目錄과 함께 편찬되어 양자가 합쳐져서《奎章總目》을 이루었다. 그러나 正祖朝에 편찬된 이 目錄은 逸失되어 지금은 그 原型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奎章閣圖書에 포함되어 있는《西庫藏書錄》(奎 No. 7717) 1册과《奎章閣書目》(奎 No. 11706) 2册 (共 3册中 1册缺), 그리고 《奎章閣書目》(奎 No. 11670) 3册 중의 第2册 〈西庫〉分을 보고 그 所藏 東本의 書名과 著者의 일부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세 書目들은 모두 高宗朝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書名 册數만을 간단히 기록해 두고 있어서 원래의《奎章總目》과는 分類法도 다르고, 그 精細함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 目錄들은《西序目錄》과는 전혀 관계 없이 그 후 圖書點檢을 위한 간단한 書目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들도《西序目錄》 2册이 전해지고 있지 않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東本〉(韓國本)의 내용을 짐작케 해주는 중요한 目錄이라고 볼 수 있다.

〈外奎章閣〉(江都外閣)은 1777년(正祖 1)에 건립하여 1782년(正祖 6)부터 주로 列朝의 御製 御筆 璿籍 刊本 儀軌 기타 存案 등을 奉安하였다. 奎章閣圖書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册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奎 No. 9133, 9134, 9147, 9143, 9142, 6136, 9139, 9140, 9148, 9137, 9135, 9132, 9138, 9165의 2〉 14册을 통하여 正祖朝부터 哲宗朝까지 外奎章閣에 소

* 서울大學校 社會科大學 副敎授 : 奎章閣圖書管理室長

장된 약 6,400册의 書目을 알 수 있다. 이 外奎章閣에 소장된 圖書 6,400册은 1866년(高宗 3) 丙寅洋擾 때 佛蘭西海軍에게 掠奪당하여 현재 佛蘭西에 보관되어 있다.

奎章閣 藏書의 수집은 正祖가 東宮 시절부터 착안한 것이었다. 正祖는 東宮 시절에 尊賢閣의 옆에 貞頤堂이라는 한 堂을 세우고 圖書의 수집에 착수하였었다. 正祖는 祖王 英祖의 뒤를 이어 即位하자 바로 奎章閣을 설치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四庫全書》를 편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進賀兼謝恩使 李溵등에게 《四庫全書》를 購入해 올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奎章閣圖書 《內閣訪書錄》〈奎 No. 1748〉은 正祖가 淸나라로 부터 圖書를 購入하기 위하여 작성한 圖書目錄이었다.

奎章閣 설치 당시의 奎章閣藏書는 약 3萬餘卷이었다. 이 圖書들은 ① 正祖의 命을 받고 使臣들이 개설(1773년) 직후의 《四庫全書》 대신 淸國燕京의 書肆에서 購入한 《古今圖書集成》 5千餘卷, ② 弘文館 藏本을 移置한 圖書, ③ 江華府의 行宮에서 所藏하고 있던 圖書, ④ 奎章閣 閣臣으로 하여금 購入케 한 山經 海志 秘諜 稀貴本 數千種을 합한 것이었다.

正祖는 이 圖書를 〈華本〉(中國本)과 〈東本〉(韓國本)으로 나누고, 그 書庫로서 華本所藏을 위하여 奎章閣의 西南에 〈閱古觀〉과 〈皆有窩〉을 짓고, 〈東本〉 所藏을 위하여 閱古觀의 北쪽에 〈西序〉(西庫)를 지었다.

《奎章總目》은 1781년(正祖 5, 辛丑) 2月에 正祖가 原任 奎章閣 提學 徐命膺에게 그 編修를 명하여 편찬되었다. 《正祖實錄》 正祖 5年 辛丑 二月 丙辰條(國史編纂委員會版 《朝鮮王朝實錄》 第45册, p. 21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內閣藏書……或購求新書 或翻刻善本 藏之東二樓 又有私刊之書 令外閣官諸道臣隨即印送摛文院內藏書籍 華本藏皆有窩 東本藏西庫 命原任提學徐命膺撰奎章總目

《奎章總目》은 編修에 착수한지 4個月만인 1781년 6월에 徐命膺의 아들 徐浩修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正祖實錄》 正祖 5年 辛丑 六月 庚子條(國史編纂委員會版 《朝鮮王朝實錄》 第45册 p. 249)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奎章總目成……丙申初載首先購求圖書集成五千餘卷于燕肆 又移舊弘文館藏本 及江華府行宮所藏皇明賜書諸種益之 又倣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位按而購買 凡山經海志秘諜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千種 及建閱古觀于昌慶內苑 奎章閣之西南以峙華本 又建西序于閱古觀之北 藏東本 總三萬餘卷 經用紅籤 史用青籤 子用黃籤 集用白籤 彙分類別 各整位置 凡其曝晒出納 皆令閣臣主之 在直閣臣或事考覽 則許令用牙牌請出 至是 命閣臣徐浩修 撰著書目 凡經之類九 史之類八 子之類十五 集之類二 閱古觀書目六卷 西序書目二券 總名之曰 奎章總目

또한 《奎章閣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閱古觀上下二層(凡二間) 又北析爲皆有窩(軒一間 煖二間)

즉 閱古觀은 2층으로 된 2간 넓이의 書庫이었고, 여기에 北析에 연달아서 皆有窩이라는 3간의 書庫가 붙어 있었다. 이 두 개의 書庫가 모두 〈華本〉을 所藏하는 서고이었다.

원래 《奎章總目》은 華本目錄인 《閱古觀書目》 6卷과 東本目錄인 《西序西目》 2卷으로 구성되어 이 양자를 총합하여 이름하기를 《奎章總目》이라고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圖書로 소장되어 있는 《奎章總目》〈奎 No. 4461〉 4卷 3册은 그 안에 ① 皆有窩甲庫(經部) ② 皆有窩乙庫(史部) ③ 皆有窩丙庫(子部) ④ 皆有窩丁庫(集部) 로 그 書架表示와 四部分類를 합치시켜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만을 보면 현재 남아 있는 《奎章總目》은 〈皆有窩〉에 소장하고 있던 〈華本〉만의 目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正祖實錄》에서 〈華本〉의 所藏處를 처음에는 〈皆有窩〉만 기록하고, 다음에는 〈閱古觀〉 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奎章閣志》에서 비로소 〈皆有窩〉과 〈閱古觀〉을 그 위치 크기와 함께 併記하고 있는 것을 보면 《正祖實錄》에서 기록한 〈閱古觀書目〉과 현재 남아 있는 皆有窩書庫表示의 《奎章總目》은 동일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 卷245(藝文考 4, 古典刊會版, 下卷 p. 875)에는 「奎章總目四卷 正祖辛丑 命徐浩修編」이라고 하여 《奎章總目》이 〈4卷〉으로 되어 있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奎章閣圖書〈No. 4461〉의 《奎章總目》 4卷 3册과 卷數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그 分類의 類別數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 볼 때 《正祖實錄》의 《閱古觀書目》과 현존의 《奎章總目》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弘齋全書》(卷 183, 群書標記 9, 藏書閣影印本 第5册 p. 354)에서는 〈奎章總目四卷寫本〉이라는 제목 밑에 현존의 《奎章總目》과 동일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秘府藏書之所 華本在閱古觀 東本在西庫 是書所錄者 閱古觀之華本也 周有藏史典簡册 魯有御書在象 魏漢有石渠東觀 宋有龍圖 崇文考古論世之士 每以是占其治之汙隆焉 書籍之重於天下也尙矣 予於丙申初載 肇建奎章閣于內苑 以奉謨訓 峙圖籍旣又購求九流百家之昔無今有者 幾數千百種 遂命閣臣徐浩修著之爲目 每書之下 標其撰人姓名 及所著義例 或節取序跋 以見其規模之槩略 或援引評隲 以明其編摩之得失 又或簡帙之廢興 俾資其沿革之考據 而至於別集之類 則人品雌黃文章月朝 亦無不旁搜搏采 一展卷瞭然 凡經之類六十 史之類一百二十 子之類一百四十八 集之類二百七十九 繼此而購得者 將隨得隨錄也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奎章總目》의 編撰者가 徐浩修라는 사실이다.

徐浩修(1736~1799)는 正祖로부터 《奎章總目》의 編撰을 下命받은 英正時代의 北學派에 속하는 徐命膺의 아들이었다. 徐命膺은 英祖朝에 吏曹·戶曹·兵曹判書를 역임하고, 正祖가 즉위하여 1876년에 奎章閣을 설치하자 1877년에 奎章閣提學에 임명되었다가 弘文館大提學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徐浩修는 1765년(英祖 41)에 式年文科에 壯元及第하여 弘文館 副交理·交理를 거쳐서 1770년에 領議政 洪鳳漢과 함께 《文獻備考》의 편찬에 참가하였다. 1776년(正祖 即位年)과 그 후에 進賀兼謝恩副使로 淸國에 다녀와서 《燕行記》〈奎 No. 4907〉 4卷 2册을

지었으며, 奎章閣이 설치되자 얼마 후에 奎章閣直提學으로 임명되었다.

《奎章總目》 4卷 3册은 徐浩修가 奎章閣直提學으로 있던 1781년(辛丑) 6월에 그의 책임 아래 편찬된 것이었다.

《奎章總目》은 《四庫全書》의 總目과 같이 經·史·子·集의 四部를 甲·乙·丙·丁의 四庫로 區分하고, 經部를 ① 總經類 ② 易類 ③ 書類 ④ 詩類 ⑤ 春秋類 ⑥ 禮類 ⑦ 樂類 ⑧ 四書類 ⑨ 小學類의 9類로, 史部를 ① 正史類 ② 編年類 ③ 別史類 ④ 掌故類 ⑤ 地理類 ⑥ 鈔史類 ⑦ 譜系類 ⑧ 總目類의 8類로, 子部를 ① 儒家類 ② 天文類 ③ 曆籌類 ④ 卜筮類 ⑤ 農家類 ⑥ 醫家類 ⑦ 兵家類 ⑧ 刑法類 ⑨ 道家類 ⑩ 釋家類 ⑪ 雜家類 ⑫ 說家類 ⑬ 藝玩類 ⑭ 類事類 ⑮ 叢書類의 15類로, 集部를 ① 總集類 ② 別集類의 2類로 모두 34類로 類別하고 있다.

《奎章總目》에서는 이러한 分類法을 채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凡書分四部 自魏之荀勗始 而部各有類 類各異例 太細則眩於割裂 太簡則傷於模糊 究厥流品之相嬗 實惟折衷之爲難 故此書爲類凡三十四 而條文創義 損益前人 疑其似而合之者 寧失於細 不得不分 同其類而分之者 寧失於簡 不得不合 晏墨之俱列雜家 所以規七略也 董荀之並歸儒家 所以正通志也 譜系目錄之折爲二類 辨乎馬氏也 天文曆籌之進於兵刑 鑑乎史志也 讖緯五行之不著 闕文也 道流釋氏之附後 黜異也 從此購刊之書 雖不知爲幾千萬卷 而其宏綱大目 皆即此乎在 不必如唐之訪書錄 宋之求書錄 隨得隨志紛紜無統也

이 《奎章總目》은 朝鮮王朝時代의 가장 규모가 큰 圖書目錄이었으며, 《奎章總目》의 圖書分類法은 그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통적 古書分類法의 標本이 되어 오고 있다.

《奎章總目》의 各書目 작성 체제는 《弘齋全書》의 위의 인용귀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各 書마다 줄을 높이어 ① 題目을 쓰고, ② 撰者의 姓名, ③ 所著의 義例를 쓰며, ④ 序文과 跋文을 節取하여 規模의 槪略을 보게 하고, ⑤ 評隲을 援引하여 그 編摩의 得失을 밝히며, ⑥ 簡帙의 廢興을 적어서 그 沿革을 考據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奎章總目》은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圖書目錄〉 뿐만 아니라 〈解題集〉의 내용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다.

《奎章總目》에 수록되어 있는 〈華本〉 圖書의 34類別 册數는 다음과 같다.

經部의 ① 總經類의 《十三經註疏》 2本 등 446册(本)

② 易類의 《郭氏傳家易說》 11本 등 53册

③ 書類의 《書傳大全》 10本 등 58册

④ 詩類의 《詩經大全》 12本 등 63册

⑤ 春秋類의 《國語》 6本 등 64册

⑥ 禮類의 《儀禮經傳通解具續》 24本 등 388册

⑦ 樂類의 《苑洛志樂》 11本 등 16册

⑧ 四書類의《四書大全》18本 등 220册

⑨ 小學類의《埤雅》6本 등 340册

史部의 ① 正史類의《史記》30本 등 1,215册

② 編年類의《資治通鑑》100本 등 556册

③ 別史類의《吳越春秋》3本 등 899册

④ 掌故類의《杜氏通典》48本 등 858册

⑤ 地理類의《水經》14本 등 556册

⑥ 鈔史類의《全史文抄》100本 등 117册

⑦ 譜系類의《萬姓統譜》36本 등 36册

⑧ 總目類의《直齋書錄解題》20本 등 42册

子部의 ① 儒家類의《孔子家語》2本 등 682册

② 天文類의《清類天文分野之書》10本 등 10册

③ 曆籌類의《五經籌術》2本 등 159册

④ 卜筮類의《焦氏易林》4本 등 4册

⑤ 農家類의《農桑輯要》7本 등 27册

⑥ 醫家類의《金匱玉函》8本 등 135册

⑦ 兵家類의《百將傳》16本 등 136册

⑧ 刑家類의《刑書統會》10本 등 46册

⑨ 道家類의《老莊翼》10本 등 45册

⑩ 釋家類의《諸經品節》12本 등 49册

⑪ 雜家類의《墨子》4本 등 70册

⑫ 說家類의《世說新語》8本 등 234册

⑬ 藝玩類의《考古圖》6本 등 155册

⑭ 類事類의《北堂書鈔》15本 등 400册

⑮ 叢書類의《說郛》168本 등 680册

集部의 ① 總集類《楚辭》2本 등 2,125册

② 別集類의《陶靖節集》3本 등 2,758册

(《奎章總目》에 書名만 있고 本數가 없는 것은 적어도 1本 以上 있었다고 보아 1册으로 계산하였음).

《奎章總目》의 册數는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經部 1,668册, ② 史部 4,282册, ③ 子部 8,832册, ④ 集部 4,883册으로 總計 1萬 9,665册에 달하고 있다.

《正祖實錄》의 앞서 든 인용문에서 奎章閣 설치 무렵의 藏書가 3萬餘 卷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奎章總目》편찬 당시의 〈華本〉이 약 2萬册, 〈東本〉이 약 1萬餘册으로서, 中國本이 韓國本보다 약 2倍정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奎章總目》 편찬 후에 奎章閣 所藏의 中國本 册數는 물론 증가되어 현재의 서울大學校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奎章總目》의 원래의 일부인 《西序書目》이 전해지지 않아서 奎章閣 설치 무렵의 韓國本(東本)의 目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존의 奎章閣圖書 《西庫藏書錄》〈奎 No. 7717〉 1册과 《奎章閣書目》〈奎 No. 11706〉 2册과 《奎章閣書目》〈奎 No. 11670〉 3册의 第2册 西庫書目을 보고 그 대강의 書名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書目들은 高宗朝에 만들어진 것으로 《奎章總目》의 分類法 및 內容과는 전혀 달리 書庫別 書名과 册數만 간단히 기록해 둔 것으로서, 원래의 《奎章總目》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간단한 것이다.